항해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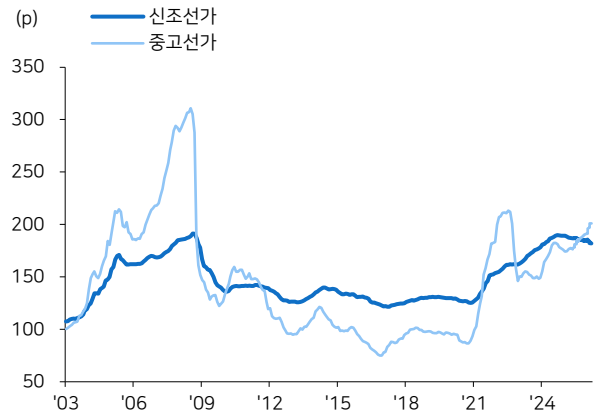
meritz 메리츠증권

2026. 3. 13 (금)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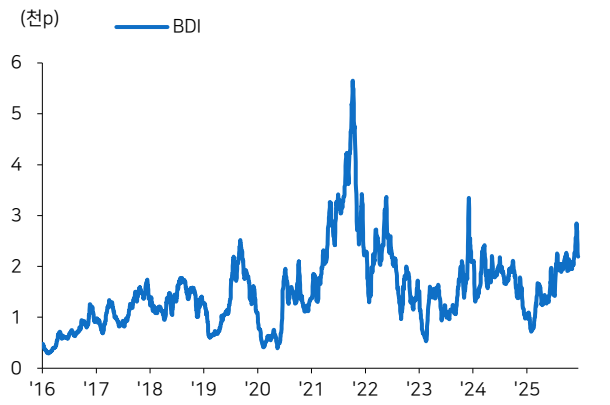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2.0p (-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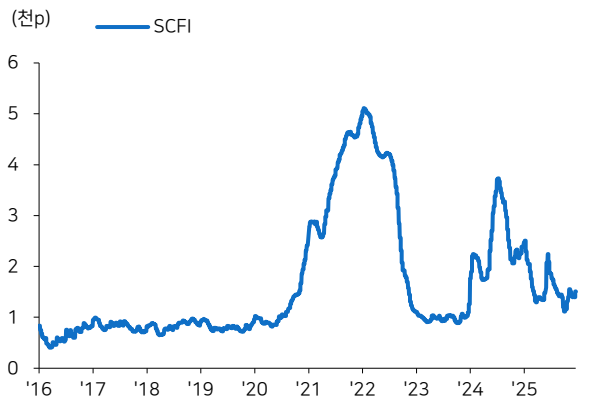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83.0달러 (-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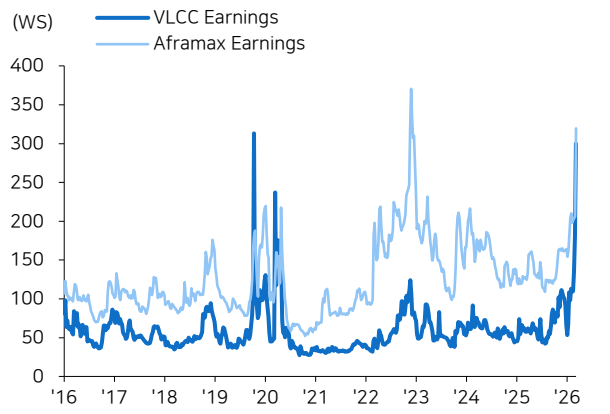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926.0p (+7.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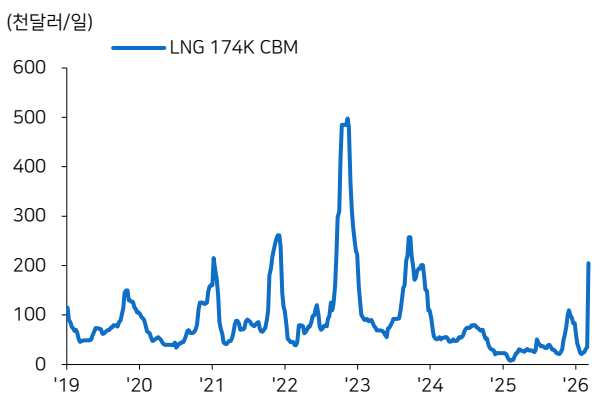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489.2p (+156.1p WoW)



VLCC Spot Rate 300.0WS (+119.9p WoW)



LNG Spot 운임 205.5천달러 (+169.5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1,500 억弗 투자 조선업 최대 수혜... "관세 인상 불확실성 해소" (세계일보) https://zrr.kr/mrL2QW

여야가 12일 한 · 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합의 처리함에 따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과 중동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도됨. 법안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1,500억 달러를 조선업에 전용 투자하고 나머지는 양국 안보 이익 분야에 투입하여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전해짐. 정부는 LNG와 원자력 등 에너지 인프라를 1호 투자 프로젝트로 검토하며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고 알려짐.

Trump mulling Jones Act waiver, White House confirms (TradeWinds) https://zrr.kr/WGI3Yd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및 연료비 상승에 대응하여 미국 연안 무역 시 자국 선박 이용을 강제하는 Jones Act의 한시적 면제를 검토 중이라고 알려짐. 백악관은 에너지와 비료 등 필수 자재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30일간의 면제 조치를 준비 중이나, 국내 해사 산업의 반발과 함께 외국 선박 투입이 오히려 운송 비용을 높일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보도됨. 2021년 법 개정으로 면제 요건이 강화되어 실제 조치 시행에는 엄격한 법적 제약이 따를 전망으로 보이며, 전문가들에 따르면 Jones Act 면제가 고유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전해짐.

DIU and U.S. Navy select Anduril for XL-AUV program (Naval News) https://zrr.kr/ROV8Rh

Anduril이 국방혁신단(DIU)의 경쟁 절차를 통해 초대형 자율 무인 잠수정(XL-AUV) 공급자로 선정되었으며, 이미 42,000km 이상의 주행 기록을 통해 분산 해상 작전에 필요한 시스템 신뢰성과 장기 운용 능력을 입증했다고 알려짐. 미국 국방부의 CAMP 사업 일환으로 4개월 이내에 Dive-XL의 작전 시연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는 미국 해군이 무인 잠수정 기술을 대규모로 채택하고 실제 작전에 배치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으로 보도됨. 과거 호주 해군과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바탕으로 리스크를 줄이고 인도를 가속화하는 역량을 보여주었으며, 현재 호주와 미국 내 전용 시설을 통해 연간 수십 대 이상의 자율 잠수정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전해짐.

Argent LNG dives in with application for new US Gulf export project (TradeWinds) https://zrr.kr/dkOlBg

미국 Argent LNG가 루이지애나 포트 Fourchon에 연간 최대 2,500만 톤 규모의 LNG 생산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미국 에너지부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27년 착공해 2030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고 알려짐. 이번 프로젝트는 모듈형 액화 트레인과 벙커링 전용 설비를 갖춰 해상 운영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며, 중동 분쟁으로 인한 해상 운송 경로 중단 가능성에 대비해 동맹국에 안전하고 유연한 에너지 공급원을 제공할 대안으로 평가받는다고 보도됨. 현재 방글라데시 및 터키 측과 공급 관련 합의를 체결한 상태이며, 미국 내 신규 LNG 프로젝트 신청이 둔화되는 추세 속에서 걸프 연안의 지리적 이점과 수출 확대의 실질적 이점을 강조하며 추가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전해짐.

한화, 선박 전동화 역량 '오션'으로 결집...내달 1 일 사업부 이관 (데일리안) https://zrr.kr/w6U3Bs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내 선박용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전기추진 시스템을 담당하는 MDS 사업부가 다음 달 1일 자로 한화오션에 이관되며, 이를 통해 그룹 내 흩어진 해양 애플리케이션 역량이 한화오션으로 집결된다고 보도됨. 이번 조치는 방산 · 우주항공과 해양 사업의 구조를 전문화하려는 그룹 전략의 일환이며, 한화오션은 단순 건조를 넘어 친환경 추진 시스템과 전동화 솔루션을 내재화한 '토털 해양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알려짐. 업계에 따르면 실무진 사이에서 통합 시점과 시너지 전략이 이미 공유되고 있어 친환경 선박 시장 공략을 위한 수직 계열화 작업이 본격화됐다고 전해짐.

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은 임금 아니다"...퇴직자들 최종 패소 (조선비즈) https://zrr.kr/0K0xtc

한화오션 퇴직자 및 재직자 972명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알려짐. 대법원은 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이 영업이익 등 재무 성과 지표에 따라 지급률이 결정되는 사업이익의 분배일 뿐, 근로 제공과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련된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보도됨. 이번 판결은 금품 지급 의무가 근로와 직접 연결되어야 임금에 해당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으며, 지난 1월 삼성전자 성과급 소송에서 일부 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한 사례와 대비되는 결과라고 전해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